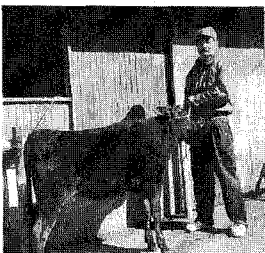


# 가축의 만병을 예방하는 마늘의 파워

## 1. 송아지 coccidium이 마늘로 해결되었다!

이이보시 후쿠시게



◀ 필자와 생후 170일된 암송아지 (장래 번식용 소). 태어나서 한번도 설사를 한 적이 없다.

### 송아지 대부분이 coccidium에 감염

본인이 사는 미야자끼현 다카치호 마을은 큐슈 중앙에 위치하고 천손강림(일본의 신화)의 성지에 있습니다. 제9회 돗토리 전국공진회에서는 다카치호 지역에서 출품한 소가 내각총리대신상, 농림수산대신상을 수상하여 미야자끼현을 종합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정도로 와규(和牛)의 사육 수준이 대단히 높은 지역에서 사는 본인은 번식 소 2마리밖에 키우지 않습니다만 실망 하지 말고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경영내용은 와규(和牛) 외에 가지 13a, 수전 70a, 건 표고버섯, 산림 28ha, 간벌재 연간 200~300m³생산, 또한 천연 자재로 제작하는 기동, 통나무 가공 등 임업을 중심으로 한 농가입니다. 2005년도에는 임업 경영에 있어서 농림수산대신상을 받았습니다. 부채가 없는 경영을 하

는데 있어서 2마리 소도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집은 마을에서 8km나 떨어진 산속으로 마당 앞을 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습도가 높은 탓인지 이전에 태어난 송아지는 거의 coccidium에 감염되었습니다.

최초 발병한 것은 1975년경 이었다. 그 무렵 coccidium은 그다지 일반적이지 않았으므로 최초로 걸린 송아지는 치료가 늦어져 병이 커졌고, 혈변을 따라 장벽이 통 모양으로 나와 있었다. 죽지는 않았지만 시장에 내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도 태어난 송아지는 거의 감염되었다. 약은 있지만 진료를 받지 않으면 예방하는 것은 어려웠다. 설사변이 보통 변 색깔과 같은 초콜릿색이었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져 치료도 길어졌다.

※ coccidium : 포자충강(孢子蟲綱 Sporozoa), 구충아강(球蟲亞綱 Coccidea)에 속하는 기생성 원생동물들로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에 기생하며 숙주의 장(腸) 내막(內膜)세포에 주로 사는 기생충으로 출혈성 설사, 빈혈, 영양 장애를 일으키는 전염병.

### 마늘을 먹여 효과를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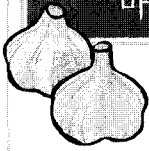

한때는 소 사육을 그만두려고 생각했던 적도 있지만, 예전에 『마늘건강법』이라는 책을 읽은 것이 생각났다. 마늘에는 페니실린에 필적하는 항균력이 있어서 옛날에는 사람에게 마늘을 갈아 먹여서 1m 길이의 촌충을 구제했었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혹시 소의 coccidium에도 효과가 있을지 모

른다고 생각해서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생후 30일 된 송아지에게 마늘을 상기의 방법으로 먹였다.

이상하게도 coccidium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신했다.

### 마늘 석탕액 만드는 방법

- ① 일본 술 2병 정도의 양과 입구가 좁은 병 준비하고,
- ② 마늘을 갈고, 설탕 한 스푼을 넣어 미지근한 물로 녹인다.
- ③ 잘 섞어서 송아지에게 먹인다.

※ 설탕은 먹기 쉽게 하기 위해 넣는 것이다.

▲ 깔때기 위에 마늘을 갈아서 설탕과 따뜻한 물을 붓는다.

생후 20일째, 40일째 2회 투여하여 설사라는 것을 모르게 되었다.

수의사에게 그것을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그런 것에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상대해주지 않았지만 우리 송아지가 몇 년이나 coccidium에 걸리지 않는 것을 보고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혹시 그렇다면 coccidium 알은 송아지의 체내에서 15~20일 정도의 시기에 부화하기 때문에 생후 20일~40일째에 2회 마시게 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었다.

그 후 계속 수의사의 말대로 이 마늘요법을 계속해온 결과 1마리도 설사 치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과식 후의 설사도 마늘과 정로환 4알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마늘을 먹었더니 강한 송아지가 되었습니다만 중병일 때에는 수의사에 진찰을 받는 편이 현명하다.

## 마늘의 건강효과!? 육질도 UP

### 지계육의 비타민 B1이 2배 이상으로

(地鷄肉 : 품종·사육기간·사육방법 등이 JAS 규격에 맞는 닭고기)

마늘을 먹고 건강하게 키운 가축은 육질도 좋다. 아오모리현 축산시험장에서는 현 특산의 마늘을 사용한 갈릭 분말을 가축에 급여하는 시험을 행하고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아오모리현의 지계 「아오모리 샤모로쿠(샤모 : 싸움 닭+Plymouth Rock : 난육(卵肉) 검용종)」 급여시험에서는 갈릭 분말을 0.3% 첨가한 배합사료를 출하 전 2주간 급여하여 ① 식육증진 및 비육촉진효과, ② 가슴육질과 다리육질의 적색이 12~13% 더 선명, ③ 가열시 육즙의 산출이 6% 적어짐, ④ 가슴육질 소의 비타민 B1 함량이 무첨가의 2.0~2.8배, ⑤ 육질이 향상되는 등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다만 체중 1kg당 사료비는 20엔(13%) 높아졌다. 갈릭 분말의 비율이 너무 증가하면 비용이 높아진다. 게다가 너무 많으면 육질에 마늘 냄새가 남게 되므로 지계비육의 경우 배합사료를 0.3% 이내로 하도록 현에서는 지도하고 있다.

### 돈육은 색이 짙고 부드러워진다.

돈육에 급여시험 결과도 최상이다.

생후 70일부터 출하 시 까지 돈육에 갈릭 분말을 0.4% 첨가한 배합사료를 주었더니 첨가하지 않은 돼지에 비해서 로스고기의 고기색이 확실하게 짙어졌고 부드러워졌다.

또한 갈릭분말 0.04%와 0.4%의 그룹을 비교하면 비율이 많은 0.4%의 그룹 쪽이 보다 부드러움이 UP되었다.

갈릭분말을 먹고 자란 돼지는 「오이라세 갈릭돼지」로서 브랜드화 되어있다. 고기 냄새 없이 맛도 좋다고 호평이 나왔다.

## 2. 마늘을 먹어서 평균 송아지 10마리 이상 출산

### 편집부

송아지가 설사하지 않는 것은 건강한 어미 소로부터 태어난 덕

가고시마현 까노야시에 사는 우메기타 기꾸미 씨는 혼자서 번식 소 9마리를 키운다. 옛 부터 소가 너무 좋아서 지금도 경매하는 날 연수회에서 본인의 소를 출품하지 않을 때에도 참가한다.

우메기타씨 우사에는 설사치료를 위해 수의사가 오는 일이 없다. 수의사에게는 「우메기타씨의 송아지는 설사를 앓하는 소」라고 이미 알려져 있다. 부지런히 배설물을 치우고 마당과 우사에 정기적으로 소석회를 뿌려서 소독을 해주고, 사료를 줄 때와 배설물을 치울 때는 같은 장화를 신지 않고, 수유 중 어미에게 푸른 풀은 주지 않는 등 설사예방에는 모든 방법을 취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방책도 쉽지가 않지만 처음부터 송아지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어미 소가 우선 건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우메기타씨는

생각한다. 건강한 어미 소로부터 건강한 송아지가 태어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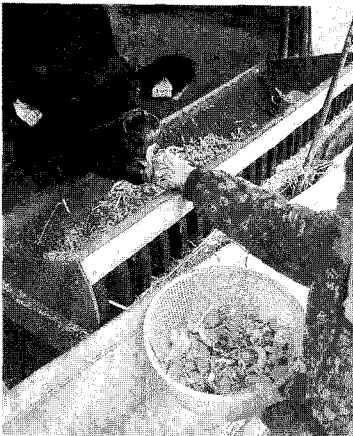
그래서 우메기타씨는 「사람에게 좋은 것은 소에게도 좋다」라고 해서 본인도 무척 좋아하는 마늘을 5a의 밭에 많이 재배하여 일주일에 2회 번식 소에게 먹이고 있다.

### 주2회 어미 소 1마리당 마늘 1통을 먹임

우메기타씨의 마늘 주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확 후 잘 건조시킨 마늘을 한 조각씩 분리해, 조사료위에 올려놓고 먹게 한다. 일주일에 2회 어미 소 한 마리당 1회에 마늘 1통을 준다.

처음 주기 시작했을 때는 냄새가 심해서 먹으려 하지 않았지만 사료 상자에 놓아두면 배가고파 할 수 없이 먹는다. 한번 익숙해지니 기호성(동물이 사료를 찾고 섭취하는데 느낄 수 있는 특성으로 사료의 외형 맛 냄새 조직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한 결과로 나타남)은 좋다.

다만 분만 직후부터 젖을 떼기 까지는 마늘은 주지 않는다. 수의사에게 마늘의 성분은 송아지에게는 다소 자극적일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 우메기타 기꾸미씨는 어미 소에게 주2회 마늘을 먹인다. 발정이 좋고 오래살고, 연산한다고 한다.



▲ 우메기타씨의 마늘 밭. 1년분의 소와 분인이 섭취할 마늘을 혼자서 재배한다.



▲ 우메기타 기꾸미씨

## 14번째로 낳은 송아지도 41만엔에 팔렸다.

마늘 덕분에 우리 소는 정말로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며, 송아지를 생 후 2개월 만에 젖을 떼었더니 바로 강한 발정을 일으켰고, 한 번의 교미로 바로 수정이 되었다. 병도 거의 없으면서 어느 소나 1년 1두 씩 송아지를 낳고, 게다가 평균적으로 10두 이상의 송아지를 낳아 번식력이 강하다.

「나이든 송아지는 싸게 팔리니 빨리 갱신하는 편이 좋아요」라고 주변 사람들로 부터 얘기를 들지만 이 기간에는 14째로 낳은 송아지가 41만엔에 팔렸다. 우메기따씨가 키우는 소는 나이가 들어도 번식에 지장 없이 건강한 송아지를 낳는다.

「발정도 좋고, 좋은 송아지가 태어나는 동안은 어미 소는 팔지 않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오래 동안 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우메기따씨는 소와 함께 마늘을 먹고 우메기따식 소 키우기를 마이 페이스로 계속한다.

## 3. 마늘의 힘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 편 집 부

#### 감기와 식욕부진의 송아지가 바로 건강하게

쿠와하라씨  
시마네현 츠와노마을

“「소 사육을 하기 위해서는 마늘을 재배하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에게도 좋아요」라고 말하는 쿠와하라씨는 번식 소에게도 송아지에게도 마늘이 좋다고 한다.

송아지에게는 건강상태가 나쁠 때만 건강유지

차원에서 준다. 감기가 걸린 것 같을 때와 사료를 잘 먹지 않을 때 마늘을 한 조각 사료에 섞어서 준다. 송아지는 기쁘게 먹고 금세 건강해 진다고 한다.

어미 소에게는 발정 예정일 약 1주일 전부터 하루에 마늘 한통을 먹인다. 그러면 발정이 확실하고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비육우의 감기, 폐렴예방에도

이와마 토시지씨  
아오모리현 닛코마을

이와마 토시지씨는 비육우에 마늘을 주고 나서부터 감기와 폐렴으로 사망하는 소가 없어졌고 병에 걸려도 치료하면 빨리 치유되게끔 되었다. 식욕도 늘어서 좋기만 할 뿐이다.

처음 마늘을 주기 시작한 당시에는 어느 소도 먹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마늘을 수조 속에 넣어서 소에게 마늘의 맛을 기억하게끔 했다. 70~80ℓ의 수조에 작은 마늘을 20~30개(1마리 당 2~3알)를 갈아 으깨어 넣어서 마늘 냄새가 적어지게 되면 또 넣는 식으로 일주일간 계속하였더니 그 후로는 마늘을 먹게끔 되었다.

마늘 주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입하고 나서 1년 정도까지 소에게 가을부터 초봄(10월~4월)까지 1하루에 2~3알의 마늘을 사료 주기 전에 준다. 사료와 함께 주면 사료만 가려서 먹기 때 문이다.

비육후기까지 계속 주면 고기에 마늘 냄새가 배어버려서 상품성이 떨어져버린다. 또 너무 많이 주면 설사를 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감기에 걸린 듯한 소에게는 갈아 으갠 마늘과 비타민제를 함께 일주일정도 먹이는 경우도 있다. 악화를 방지하고 치료도 빨라진다.

## 소의 유방염에 마늘 + 소주에 절인 약초가 효과

다구치 에이꼬씨  
이와테현 니노헤시

다구치 에이꼬씨는 번식 어미 소의 유방염을 손수 마늘과 소주에 절인 약초로 치유했다.

만드는 방법은 우선 뒷병에 소주를 반 정도 넣는다. 그것에 馬포도(野포도 : 일본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예부터 馬포도를 채취하여 류마티즘, 신경통, 관절염에 효과 있는 민간요법으로 이용해왔고, 간장을 강하게 한다고도 전해지고 있다.), 칠엽수 열매, 파리, 마늘 등을 넣어서 연간 놓아둔다. 완성된 액을 분무기에 넣어서 유방염의 환부에 마사지 해주면 염증이 치료된다.

사람용으로도 염증 방지에 사용할 수도 있다. 이전에 소의 뿔이 다구치씨의 오른쪽 눈 부근에 부딪혔을 때 바로 이 액을 발라더니 통증이 가라앉았고 멍도 없이 치료됐다. 이 액을 마시면 병에도 쉽게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 마늘의 약효란?

#### 강력한 항균·구충작용

마늘의 효력으로 말하자면 강력한 항균작용(균의 증식방지·살균). 이것은 생마늘을 자르거나, 갈거나 하면 발생하는 「알리신」과 알리신이 분해해서 생기는 「sulfide(황화물)」의 작용이다 (그 냄새의 근원도 있다). 가열하면 항균작용은 없어지므로 항균목적의 경우는 생마늘로 주는 것이 좋다.

마늘은 그리스 시대부터 구충약으로서 사용되어 왔지만 이것도 알리신의 효과의 하나다. 315페이지의 이이보시씨는 항균작용·구충작용을 활용해서 송아지의 coccidium·설사를 방지하고 있다.

다만 알리신은 자극성이 강한 물질로 한 번에 지나치게 섭취하면 위장의 점막을 너무 자극해서 궤양을 일으키거나 항균작용이 너무 강해서 유용균까지 죽여 오히려 설사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가축들의 체형에 따라 적량을 주어야 한다.

마늘에는 항염증작용도 인정받고 있다. 다구치 에이꼬씨가 사용하는 유방염용 약은 마늘의 항균작용과 항염증작용이 상승효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 물론 강장작용도

물론 마늘은 강력한 강장작용이 있다. 이것은 몇몇의 작용으로 인한 종합효과라고 생각되어진다.

우선 알리신에는 비타민B1의 흡수를 촉진하고 혈액 중에서 비타민 B1의 작용을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다(비타민 B1은 체내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에 빠져서는 안되는 성분).

마늘에는 혈관을 넓혀서 전신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작용이 있다고도 말한다.(동맥경화를 억제하는 작용도 확인되었다.)

체온을 상승시키는 작용도 강장효과의 하나이지만 이것은 생마늘이라도 가열 후에 효과가 변하지 않는다. 겨울에 소의 감기예방에 마늘이 좋은 것은 이 체온 상승작용 덕도 크다.⑤



〈편집자주 : 본 원고는 일본 현대농업 2009년 6월호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임.〉